남산예술센터 2019 시즌 프로그램 | 극단 동 공동제작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 ▶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화제의 연극... 내달 9일(수) 개막
- ▶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인 소설가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 ▶ 기울어진 원형 무대 위에서 돌고 도는 몸짓이 불러오는 뒤집힌 시간의 감각
- ▶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덜어주는 무대가 될 터"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남산예술센터는 극단 동과 공동 제작한 2019년 시즌 프로그램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새, 연출 강량원)을 오는 10월 9일(수)부터 27일(일)까지 무대에 올린다.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각색해 2018년 9월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된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전년도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화제작이다. **"추상적인 소설의 내용이 신체행동 연극을 주로 펼치는 극단 동의 장점과 잘 결합된 수작"**이라는 평과 함께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비롯해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등에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작품은 관객과 평단의 찬사에 힘입어 2019년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 다시 한 번 오르게 됐다.

한 남자를 구성하는 세계, ‘시간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퇴적된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기억’, ‘시간’, ‘고통’, ‘속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시도한다. 극 중 남자와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다. 동급생 영훈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남자는 ‘우주 알 이야기’라는 소설을 써 여자가 일하는 출판사에 보낸다. 여자는 소설의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남자를 찾아간다. 한편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남자를 쫓는 영훈의 어머니는 재회한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남자는 본인이 저지른 살인이 세상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깨닫는다.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 과거·현재·미래의 순으로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도 뒤집는다. 그믐날 자신에게 들어온 ‘우주 알’을 받아들인 남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을 한 방향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 고통을 어루만진다. 관객은 해체된 시·공간 속에서 한 남자의 세계를 조각난 이야기와 파편화된 장면으로 만난다.

기울어진 무대, 기울어진 몸짓이 부르는 낯선 감각

극단 동은 과거로부터 쌓여 온 현재가 아니라 언제인지 알 수 없이 ‘계속되는 현재’를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해 극단의 연기 메소드인 ‘신체행동연기’를 작품에 집약시켰다. ‘신체행동연기’란 감정이나 심리의 표현보다 행동의 나열을 통해 인물과 장면을 전달하는 연기 방법론이다. 시간의 해체라는 원작 소설의 형식과 신체행동연기라는 연극 양식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은 저마다의 해석에 따라 인물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달리 볼 수 있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의 미학적인 특징으로는 기울어진 원형 무대를 꼽는다. 원형의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세계를 표현하는 배우들은 균형이 무너진 채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몸짓을 만든다. 이는 과거에 대한 기억, 기억에서 비롯된 고통과 분노, 현재에 대한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강량원 연출가는 “소설을 읽었다면 책과 연

극을 비교하는 재미를, 읽지 않았다면 공연을 통해 작품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작품의 대사인 ‘과거로부터 널 지켜줄게’를 인용하며 “이 작품이 기억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덜어주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번국도>, <명왕성에서>, <묵적지수> 등 올해 상반기 시즌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연을 진행해온 남산예술센터는 이번에도 10월 18일(금), 19일(토) 공연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을 제공한다. 문자통역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전용 기기가 비치된 좌석에서 자막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은 모든 회차 공연에서 관람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예매처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예매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전화(02-758-2150)예매가 가능하다.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전석 3만원, 직장인 2만4천원, 청소년 · 대학생 1만 8천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1만5천원. (예매 및 문의 02-758-2150)

첨부 1. 공연 개요
2. 작품 소개
3. 원작자 소개
4. 각색자 소개
5. 연출가 소개
6. 극단 소개
7. 배우 소개
8. 컨셉 사진
9. 공연 사진

[첨부] 1. 공연 개요

■ 공 연 명 :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 기　　간 : 2019.10.09.(수) ~ 10.27.(일) (총 17회)
※ 배리어프리버전 2019.10.18.(금) ~ 10.19.(토)
■ 시　　간 : 평일 19:30, 토/일/공휴일 15:00 (월요일 공연 없음)
■ 장　　소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부대행사 : 관객과의 대화

일정	시간	참여자
10월 12일(토)	15시 공연 종료 후	강량원(연출가), 정진새(각색), 김석주, 김문희, 유은숙, 최태용, 신소영, 윤민웅, 김정아(출연배우) - 진행 김신록(배우)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문화재단, 극단 동
■ 제　　작 : 남산예술센터, 극단 동
■ 관 람 료 : 전석 30,000원 / 학생 18,000원 / 복지할인 15,000원
■ 관람연령 : 만13세(중학생) 이상 관람가
■ 러닝타임 : 120분(예정)
■ 예　　매 : 남산예술센터 www.nsac.or.kr /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 문　　의 :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 출　　연 : 김석주, 김문희, 유은숙, 최태용, 신소영, 윤민웅, 김정아
■ 스 태 프 : 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새, 연출 강량원, 무대미술 임일진, 음악 장영규, 조명 최보윤, 의상 강기정, 분장 장경숙, 안무 금배섭, 조연출 차지수, 홍보사진 이강물, 홍보영상 박태준, 배리어프리버전 ㈜사운드플렉스

[첨부] 2. 작품 소개

연극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각색해 2018년 9월에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선정,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선정 등 2018년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관객과 평단의 찬사에 힘입어 2019년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 다시 오른다.

소설은 일반적인 시간 법칙을 뒤집으며 전개된다. 연극은 원작의 순서를 한 번 더 흐트러뜨렸다가 극단 동의 방식으로 다시 묶었다. 남자, 여자, 아주머니 세 인물의 서사는 작두로 잘라냈다가 뒤죽박죽 이어 붙인 책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뒤얽힌 채로 전개된다. 조각난 이야기와 사건들은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부유하지만 관객들에게 이것이 모두 한 사람, 남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남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나열하고 때로는 상상한 것을 더하고, 또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한다. 남자는 현재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려 한다. 시간의 해체라는 외형적인 형식과 신체 행동 연극이라는 극단 동의 작업방식이 만나 관객은 과거로부터 쌓여 온 결과론적인 현재가 아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현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인물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첨부] 3. 원작자 소개 (장강명)

2011년『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2014년『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 2015년『댓글부대』로 제주4.3평화문학상,『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았다.
『산 자들』『지극히 사적인 초능력』『당선, 합격, 계급』『한국이 싫어서 』외

[첨부] 4. 각색자 소개 (정진새)

극단문 드라마작가 및 연출가. 연극원에서 연극이론 및 서사창작을 전공했다. 극단문에서 극작과 연출을 맡고 있으며,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연극 <브레인 컨트롤> <웃음의 고등학교> <환상속의 그대> <노래의 힘> <전국싸움대회> 외

[첨부] 5. 연출가 소개 (강량원)

낯설고 절제된 언어의 분절적인 울림과 신체 움직임의 조화를 통해 시청각으로 표현된 시(詩)를 체험하는 듯한 연극을 만들고 있다. '월요연기연구실'을 열어 지금 이 시대와 세계, 인간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연극 형식과 연기 메소드를 개발하고 있다.

연극 <콘센트-동의> <너의 후일은> <베서니,집> <게공선> <투명인간> <칼집속에 아버지> <비밀경찰> 외 다수
수상 2018 동아연극장 작품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올해의 공연 베스트7
2016 동아연극상 연출상, 작품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올해의 공연 베스트7
2013 올해의 연극 베스트3
2010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올해의 공연 베스트7
2009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PAF연출상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무대예술상

[첨부] 6. 극단 소개

극단 동은 신체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극을 만들어왔다. 연출과 배우의 역할 구분이나 경계를 없애고 함께 제안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통해 공동의 언어를 개발하고 있다. 관객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며 늘 극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자본주의 민낯시리즈 3부작 <쉬또젤라찌> <게공선> <베서니, 집> 등을 공연했다.

[첨부] 7. 배우 소개

남자, 우주 알 役 김석주
<게공선> <베서니, 집>
<투명인간> 외

여자 役 김문희
<베서니, 집> <상주국수집>
<투명인간> 외

여자 役 유은숙
<상주국수집> <쉬또젤라찌>
<비밀경찰> 외

영훈, 아저씨 役 최태용
<게공선> <스핀싸이클>
<언더스터디> 외

소녀 役 신소영
<베서니, 집> <상주국수집>
<투명인간> 외

소년 役 윤민웅
<게공선> <쉬또젤라찌>
<비밀경찰> 외

아주머니 役 김정아
<베서니, 집> <상주국수집>
<쉬또젤라찌> 외

[첨부] 8. 공연 사진